



2012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한마음

2012 여수세계박람회 범도민지원협의회는 18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박종연 전남지사과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응서 범도민지원협의회 의장 및 지원협의회 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정기총회'를 갖고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암·금호호 간척지 7000ha 3조 투입

전남에 국내최대 농·생명 수출단지

영암·금호호 인근 영산강 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농·생명 융합 수출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대응 전략으로 대규모 수출거점단지를 구축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영산강 3-1·2 지구 간척지 7049ha를 활용, 총 10개 농·생명 융합 수출단지 조성을 하고 타당성 및 개발방향, 규모, 입지 선정 등을 포함한 '농·생명 융합 수출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 지역은 현재 영산강 3-1·2 지구 간척지(1만2500ha) 중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로 추진중인 삼호·삼포·구성·부동지구(1482만평)와 간척지 조성 뒤 분양된 면적(2151ha)을 제외한 전체 면적으

로, 총 사업비만 3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던 J프로젝트 초송·송촌지구도 포함된다. 전남도의 구상이 실현되면 ▲생명 산업연단단지 ▲농업기업도시 ▲월드애그로뮤지엄 ▲대규모 수출단지 ▲첨단식품공장 ▲친환경축산단지 ▲관광농업단지 ▲복합물산단지 ▲생태환경단지 ▲종자산업연단단지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농·생명 수출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수출 원예단지(520ha)의 경우 거대한 첨단유리온실이 들어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파프리카·토마토 등을 생산, 수출하게 되며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단지(100ha)는 체험·교육·레저 기능을 추가한 관광 목적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관광농업단지(30ha)에는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업공원과 경관작물단지가 황새조망대 등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간척지 소유자인 농림수

산식품부와 협의해 정부와 지자체는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을 맡고 민간 기업이 30년 임대로 저렴하게 땅을 임대,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국내 식량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농도(農道)'로 불리는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용 농·식품 단지를 만들어 FTA 파고(波高)를 이겨낼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민간 기업의 참여 여부다. 전남도는 현재 저렴한 땅만 공급된다면 10년간 100억원씩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나올 정도로 사업 전망도 밝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특히 애초 쌀 생산 역할을 담당했던 간척지의 경우 국내의 농업 환경 및 시장 여건

윤증현 "유류세 인하, 언제 얼마나 할지 고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계획에 대한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밝히고 "언제, 얼마나(인하)할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서민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

된다. 윤 장관은 이어 "관세 인하를 포함해(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세 인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안세 인하 혜택은 대기업에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법안세는 국가간에 세율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2% 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연혜뉴스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간척지 소유자인 농식품부도 농산물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유통·수출 기능 등이 결합된 다양한 간척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도 쌀 생산 이외의 21세기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대규모 농업단지로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중이다. 전남도는 수출전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 농식품부의 협의를 통해 간척지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 저속철 철회” 만장일치 결의

전남도의회 新線 건설 촉구...무안국제공항 활성화도

전남도의회가 호남 '저속철'건설 계획 철회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 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영덕(무안·2·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남저속철 건설계획 철회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국토해양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호남고속철도(KTX) 광주·목포 구간을 전용선으로 신설하는 대신 기존 노선을 활용해 건설

하겠다는 방침은 애초 계획보다 퇴보된 근시안적 계획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호남고속철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선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또 "정부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광주공항 국내선을 하루 빨리 무안국제공항에 통합·이전시키고, 지역 여건을 양상하는 군산공항 국제선 유치에 철회해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남 핵심 현안인 F1 자동차경주대회를 비롯,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민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한나라당,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발송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구간 경계조정안 시의회 통과

행안부 승인·국무회의 의결만 남아

광주시의회는 18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구와 동구의 인구를 늘리고 북구는 감소시키는 내용의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결청취의 건'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해 온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은 5개 구의회 의견 수렴 절차 및 동의를 거쳐 이날 시의회 의결청취 절차를 모두 마무리, 행정안전부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시의회에서 의결된 구간 경계조정안에 따르면 동(洞)의 인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구는 1만6681명, 동구는 568명, 광산구는 234명, 남구

는 4명이 각각 증가하고, 북구는 2만 1987명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동구는 10만2841명에서 10만7909명 ▲서구는 30만3726명에서 32만407명 ▲남구는 21만7346명에서 21만7350명 ▲광산구는 36만4528명에서 36만 4762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북구는 46만7867명에서 44만5880명으로 감소한다.

조정대상은 하남 대로를 중심으로 북구 동립동(1만4130명)과 운암1동(3624명) 일부를 서구로 편입하고, 갈마로·필문대로·독립로를 기준으로 북구 두암3동(1696명), 풍향동(2430명), 우산동(236명), 중흥1동

(819명) 일부를 동구 관할로 조정한다. 또 갈마로·필문대로를 기준으로 동구 산수 1·2동(660명) 일부를 북구 풍향동으로 편입하고, 치마봉 자락에 위치한 남구 방림2동(612명) 일부를 동구로 조정한다. 이밖에 남구와 서구로 분리된 송원학원 부지 전체를 남구로 조정하고 광주천을 경계로 서구 광천동 무등경기장 주변 일대를 북구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권고안대로라면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정수가 유지된다.

광주시는 조만간 행안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6월께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똑똑한 전기로 그린
그린에너지 세상

그린에너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기가 스마트그리드로 한 번 더 똑똑해집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정보통신기술(IT)을 이용하여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입니다.

이제, 스마트그리드가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이끌어갑니다.

대한민국 스마트그리드, 한국전력이 이끌어갑니다

